인터넷신문 www.경영저널.com

경영저널

COVER STORY 김문오 달성군수
특집 6 · 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게 바란다
달성특집 비슬산권 관광개발 박차
Hot Issue 달성군, 대구성장 중심축으로 급부상
Industry 대구국가산단, 산업용지 분양 '스타트'
초대석 김범일 전(前) 대구시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종호 (사)대구디자인협회 회장
포커스 리딩 공기업 부채 눈덩이 · 부채감축 빨간불
통계로 보는 대구 · 경북 경북 농가규모 계속 줄어든다
음식명가 촌두부 · 청국장 전문점 '정강희두부마을'

47th
2014 7

경상북도 세계 물 산업의 메카! 경상북도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7th World Water Forum
Daegu & Gyeongbuk, Korea

기간_ 2015. 4. 12 ~ 17 (6일간)

장소_ 대구 EXCO,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Water for Our Future"

규 모 국가정상급 포함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연인원 4만여 명

내 용 포럼 – 4개 주요과정별(주제별 · 정치적 · 지역별 · 과학기술) 논의 및 시민포럼
EXPO & Fair – 물 관련 우수 정책, 제품, 기술 등 전시

세계물위원회(WWC)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매 3년마다 개최하는 물 분야 최대 국제행사

The World Water Forum is the world's largest meeting on water and is organized every three years by the World Council. The 7th World Water Forum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secure and implement concrete actions to build a water-secure future.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7th World Water Forum 2015 · WORLD WATER COUNCIL · 국토교통부 · eride GyeongBuk · Colorful DAEGU

Contents

www.경영저널.com
July 2014

06 **특집6 · 4지방선거-광역단체장에게 바란다**
'대구 · 경북 상생발전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12 **Cover Story**
김문오 달성군수
"군민 삶의 질 높이고 살기좋은 명품도시 달성 만드는데 헌신하는 밀알될 것"

16 **달성 특집**
비슬산권 관광개발 박차

18 **달성군 가볼만한 곳**
사문진주막촌, 마비정 벽화마을 누리길

20 **달성 핫이슈**
달성군, 대구 성장 중심축으로 급부상

22 **달성 대표 농산물**
유가찹쌀 전국적 명성

24 **Industry**
대구국가산단, 산업용지 분양 '스타트'

26 **초대석**
김범일 전(前) 대구시장

28 **청호(靑湖)칼럼**
섬김의 리더십

30 **People**
윤두현YTN플러스사장 – 청와대홍보수석에 임명
류중일 삼성라이온즈 감독 –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www.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KEPI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Contents

www.경영저널.com
July 2014

32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종호 (사)대구디자인협회 회장

34 **포커스 리딩**
공기업 부채 눈덩이 · 부채감축 빨간불

36 **건강**
내 머릿속에 뇌동맥류가 발견된다면…

40 **통계로 보는 대구 · 경북**
경북 농가 규모 계속 줄어든다

42 **이슈 앤 이슈**
대구공공기관 중기 제품 구매 외면

44 **음식명가**
촌두부 · 청국장 전문점 '정강희두부마을'

48 **Economy**
5월 산업활동 부진 · 경기회복 주춤

50 **지자체는 지금**
'요우커 잡아라'
경상북도 수산자원 방류집중

54 **지역소식**

경영저널 통권 제47호

발행인·인쇄인 이진구

편집장 서기대

취 재 배은정

사 진 김원현

편집디자인 류영철

편집위원 백재호, 홍순대, 서용준
윤정현, 민경량

광 고 한혁동

인쇄처 신흥인쇄

발행처 www.경영저널.com

본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46-8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 FAX 053) 766-1356
경산 053) 811-2820

등록번호 대구라07691

창 간 2007년 11월 5일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1368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90,000원
정 가 : 8,000원
예 금 주 : (주)경영저널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제 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 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대구 · 경북 시 · 도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706-8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k_journal@daum.net
전화 053) 766-1368 FAX 053) 766-1356

"대구·경북 상생 발전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변화 갈망' 지역 민심 제대로 읽어야

민선 6기 권영진-김관용 호(號)가 닻을 올렸다. 지난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서다. 1995년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은 이후 6번째 선거로 치러진 이번 6·4 지선에서 시·도민들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대구와 경북을 이끌어갈 광역단체장으로 선택했다. 여섯 차례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는 문희갑-조해녕-김범일 체제에 이어 이번 지선에서 권영진 시장을, 경북은 관록의 3선을 역임한 고(故) 이의근 전 도지사에 이어 역시 3선에 도전장을 낸 김관용 도지사에게 바통을 또 다시 맡겼다.

"현안과제 슬기롭게 풀어야"

대구와 경북은 현 정부들어 지역 발전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대구경제는 장기 불황 탈출기미를 좀체 보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설자리가 없고, 지역의 기둥인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아 대구를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수십 년 째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수십년째 전국 꼴찌의 늪에 빠져있다.

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양대 경제 버팀목인 구미의 IT 전자산업과 포항의 철강산업은 국내외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성장세가 한풀 꺾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웅도(雄道) 경북의 근간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경북은 아울러 김관용 현 도지사 체제에서 도청 이전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북도청과 관련 기관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대구를 떠나 안동과 예천지역으로 새둥지를 트는 만큼 경북 북부권 도청이전에 따른 성공적 안착을 위해 도민들의 지혜를 한데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청이전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대구와 경북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칠 전망이다. 당장 대구의 경우 도청 후적지

를 대구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경북 역시 도청을 낙후지역인 북부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 균형 개발 등 도청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할 것으로 진단된다.

상생 위한 유기적 협력 요구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이 민선 6기 동반 성장 발전을 일궈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권영진 시장과 김관용 도지사가 손을 맞잡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와 경북은 지난 2006년부터 시·도 간 경제 통합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 발굴 및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여태껏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민선 6기 출범 전인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당선인 신분이었던 권 시장과 김 도지사는 대구·경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생(相生)의 기치를 내걸고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두 광역단체장은 이에 앞서 각각 새누리당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6월 1일 경상감영공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이 지역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자는 상생협약식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권 시장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대구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정무부시장과 서울 노원을에서 국회의원을 한 차례 지낸 그가 장기 침체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대구의 혁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겠다는 강인한 인상을 심어준 것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낸 원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에 반해 김 도지사는 풍부한 행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3선의 관록과 경륜을 자랑하는 광역단체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 혁신의 정점에 오른 50대 권 시장과 3선의 70대 김 도지사가 서로 손을 맞잡는다면 광역 경제권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이 때문에 나온다.

대구와 경북의 상생 발전을 위한 권 시장과 김 도지사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권 시장과 김 도지사가 손을 맞잡고 풀어야할 현안 과제로는 신공항 정책도 빠트릴 수 없다. 남부권 신공항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남부지역 주민과 기업의 상생발전에 가장 적합한 곳에 입지가 선정돼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하지만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 신공항 입지를 두고 가덕도 당위성을 주장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이기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처럼 신공항 입지를 두고 대구·경북-부산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게 패이고 있는 형국에서 남부권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권 시장과 김 도지사의 역할론과 리더십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변화 갈망' 지역 민심 적극 수용해야

대구·경북은 그동안 국가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적잖게 푸대접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안팎에서는 이를 개선해야한다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충청권이 현정부와 과거 정권에서 여야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변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실이익을 챙기고 있는 점과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실제로 충청권은 세종시, 대덕연구단지, 첨복 등 국가적 프로젝트 배분에서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6·4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전원을 야당 후보로 선택하는 등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경북은 새누리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할 정도로 현 여당의 강세지역이지만 지역발전에선 늘 홀대 받기 일쑤인 점에서 지역 정치인에 대한 시·도민들의 반발 기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역대 야권 성향의 대구시장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인 40.33%의 지지를 받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동시에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표출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정모 시사평론가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후보의 높은 득표율은 기존의 여당 출신 시장과 새누리당 일색의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와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향후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의 과거와 같은 새누리당 몰표 시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권 시장과 김 도지사 역시 시·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 같은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서기대 편집장

제9대 경북도의원 27명, '도의원 배지' 다시 다는데 성공

한혜련 의원 등 관록의 4선 등극

6월4일 치러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현역 경북도의원 27명이 '도의원 배지'를 다시 다는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9대 경북도의회 의원 63명 중 42.9%만이 10대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북도의회사무국에 따르면 한혜련(새누리당 · 영천1) 제9대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6 · 4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광역의원에 당선되며 4선 의원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로써 한 부의장은 7 · 8 · 9 · 10대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내리 4선은 아니지만 박성만 제9대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김응규 의원, 장대진 의원도 각각 4선 도의원의 영예를 안았다. 박성만 부의장은 6 · 7와 9 · 10대 각각 당선됐으며, 김응규 의원과 장대진 의원은 6 · 7 · 8대에 이어 10대 도의원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6 · 4지방선거 투 · 개표 결과, 경북도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현역 의원 40명이 출마해 24명이 당선됐다. 아울러 현역 무소속은 출마자 2명 중 1명이 배지를 다시 다는데 성공한 반면 교육위원 2명은 지역구 도의원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7월 출범한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수는 제9대 때보다 3명 감소한 60명으로 줄어들었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 포항과 안동, 경산지역에서 각각 선거구 한 곳씩 늘어난데 반해 영덕은 기존 선거구 2곳에서 1곳으로 축소됐으며, 앞서 총 5명을 뽑은 교육위원 또한 모두 폐지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제10대 경북도의원 당선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3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 17명, 60대 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최고령은 68세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배영애 의원이, 최연소 도의원은 40세인 배진석(경주1 · 새누리당) 의원에게 각각 돌아갔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52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무소속 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당선 유형별로는 초선이 가장 많은 33명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재선 18명, 3선 5명, 4선 4명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여성 당선자는 4명에 그쳐,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전체 6명의 몫인 비례대표 당선자 가운데 여성이 3명을 차지했으며, 지역구 당선자는 한혜련 부의장 1명에 불과했다. 비례대표 도의원은 새누리당에서 4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명이 각각 당선됐다.

이와 함께 이번 6 · 4지방선거에서 최고 득표율과 최저 득표율 당선자는 새누리당 후보로 예천2선거구에 출마한 안희영 의원(80.2%)과 같은 당 문경1선거구의 박영서 의원(43.4%)에게 돌아갔다. 6 · 4지방선거 경북도의원 당선자는 7월부터 앞으로 4년간 경북도정을 감시 · 감독하고 경북도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 · 의결하는 소임을 맡게 된다.

경북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경북지역의 균형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집행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은정 기자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자 3명 검찰 수사

유권자에게 금품 제공 혐의 등 받아 … 검찰 수사 결과 '촉각'

지난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자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재선의 A 군수와 초선의 B 군수, 3선의 C 군수 등 기초단체장 당선자 3명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B 군수는 이번 지방 선거기간 중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B 군수는 지난 5월 30일 군민 ㄱ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5만 원권 지폐 20장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수는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B 군수는 최근 기자회견를 갖고, "ㄱ 씨와 처음 만났고 그가 국회의원을 비방해 곧바로 자리를 떴는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줄 수 있겠냐. ㄱ 씨를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재선의 A 군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쓴 기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군수는 지난 3월 군수실에서 지역 한 언론사 ㄴ 기자에게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구지검 서부지청는 ㄴ 기자가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해옴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A 군수는 ㄴ 기자에게 건넨 돈은 올해 초 사고로 입원했을 당시 주려고 했던 위로금으로, 병문안 당시 사정이 있어 주지 못했고 퇴원 후 군수실로 찾아왔기에 건넸을 뿐, 선거와는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선의 C 군수 역시 최근 3년간 군 예산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C 군수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한편 6 · 4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 · 향응 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북지역의 선거사범은 338명으로 집계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들 중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6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 · 향응 제공이 1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 유포 및 상대 후보 비방 46명, 인쇄물 배부 41명, 사전선거운동 37명으로 집계됐다.

배은정 기자

| 인터뷰 |

김문오

달성군수

Profile

1949년 대구 달성
대구 달성 화원초
경북대 사대부고
경북대 법학과 학사
대구 MBC 보도 · 경영 · 편성국장
대구 MBC 미디컴 대표이사
한국언론재단 기금이사
대구 산악연맹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대구 축구협회 이사
경북대 법대 동창회장
제18회 대구시 문화상(언론부문)
한국방송대상(지역언론부문)
2012년 지식경영인대상(자치단체장부문)

재선 단체장인 김문오 달성군수는 민선 6기 취임과 동시에 살기 좋은 달성 조성에 불철주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향 달성을 치안이 확보된 범죄 제로(ZERO)도시, 재난재해없는 안전도시, 대구경제를 먹여 살릴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대구 미래 백년을 책임질 중추도시로 창조하겠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달성군은 더 이상 대구의 변방이 아니라 대구의 중심도시로 조명받고 있습니다"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좋은 명품도시 달성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낮은 자세의 참일꾼이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군민 삶의 질 높이고 살기좋은 명품도시 달성 만드는데 헌신하는 밀알 될 것"

Q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면?

A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학기금만 군 장학회와 읍·면 장학회에서 출연한 기금을 합해 208억 원에 달합니다. (재)달성장학재단은 지난 2000년 설립 이래 70억 원 이상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최근까지 총 2천194명에게 장학금 23억 6천100만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달성군은 아울러 '달성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명문고 지속적 육성을 위해 인터넷수능방송은 물론 기숙형 고교 육성,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어민 영어교실과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강화하고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분야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대구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18일 '2014년도 달성군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대해 포괄사업비 10억 원, 단위사업비 13억8천700만 원을 합해 총 교육경비 23억8천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경비 이외에도 영어마을 체험학습 11억8천만 원, 원어민영어교실 6억 3천만 원, 대구가톨릭대 향토생활관 건립지원 3억 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4억8천만 원, 성인문해 교육지원 3천만 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7억6천만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달성군의 전체 교육관련 예산은 58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달성군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Q 복지분야 지원책에 대해선?

A 복지 대상자수 대비 달성군의 자체복지예산은 1인당 15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대구지역의 다른 기초자치단체(70만~130만 원)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분야 예산 투입에 소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우, 어르신,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고령화 사회 가속화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급 등 출산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 동시에 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장학금 지급, 출산장려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 출산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아울러 보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육시설 신규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예산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비 및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 원어민 및 다문화 체험 지원사업 등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 추구를 위해 다사 매곡과 옥포 반송, 하빈 무등, 구지 고봉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옥포면에 주민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공공의료시설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의료사업 등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Q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점사업에 대해선?

A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좋은 달성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를 준공하고 명곡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 · 운영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슬산과 낙동강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등 군민들을 위한 여가 및 휴식 공간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건립된 달성군립도서관과 읍 · 면별로 마련돼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선 군민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자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해나갈 복안입니다. 군민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갖도록 달성교양강좌와 성인문해교육은 물론 청춘대학 등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Q 살기좋은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면서요?

A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수시로 '작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달성군민임을 자랑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해 달라' 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700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주민들도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는 달성군민으로서의 자존감을 살려주고, 내부적으로는 예산절감은 물론 직원들에게 '하면 된다' 는 긍정의 힘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를 확대 추진해 군 재원확충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Q 명품도시 달성군 건설 방향에 대해선?

A 달성군은 대구의 모태로서, 그간 대구를 키우고 살찌우는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대구의 변방으로 인식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대구의 변방이 아닙니다. 대구 미래 백년을 책임지게 될 중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를 필두로 달성1 · 2차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이 입지한 달성군은 현재 대구경제의 70%를 책임질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과거 대구의 변방에서 명실상부한 대구의 성장 중심축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대구경제를 견인할 국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0여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 명품도시 달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00년 역사의 달성군은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문화 · 경제 · 복지 · 교육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를 자산으로 새 100년을 꽃 피우는 동시에 달성의 희망찬 미래를 열겠습니다.

Q 달성군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성장 동력을 소개한다면?

A 거듭 강조하지만 달성군의 미래는 곧 대구의 미래입니다. 그 중심에는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대구테크노폴리스가 있습니다. 727만㎡ 규모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비롯해 국립대구과학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등 첨단복합기술을 선도할 핵심기관은 물론 현대커민스 등 우량기업의 입주가 활발합니다. 대구의 첫 국가산단으로 조성 중인 대구국가산업단지 역시 대구 · 경북 경제를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준공한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은 이미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시설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조만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의 국가산업단지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확대에 따라 남부권 산업벨트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개발 가속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연내 완공 시 대구수목원과도 지척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원활히 이뤄질 때 달성군의 미래는 비로소 활짝 꽃 피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 군 개청 100주년의 의미에 대해선?

A 달성군은 지난 3월1일 군 개청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짚어 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914년 3월1일 지금의 중구를 제외한 대구 전체 지역에 해당하는 대구부 외곽 16개 면을 관할하면서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개청식에서는 군 개청 100주년을 맞아 '꿈이 실현되는 행복창조도시 달성'을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선포하고 함께 꿈꾸는 행복 달성 조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5DREAM 실현으로 주민 행복수준 극대화'로 정하고, 활력넘치는 창조경제(Dynamic economy), 주민이 행복한 교육·복지(Resident first),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체계(Easy to get), 매력적인 문화·관광(Attractive culture), 자연친화적 생태환경(Most eco-friendly)을 5대 추진목표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달성군은 과거 100년을 지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선에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달성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군민 모두와 손을 맞잡고 꿈과 희망의 달성 건설에 함께 나아갑시다.

Q 관광상품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면서요?

A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우선 달성군은 신라 천년의 고찰이자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구상했던 비슬산 대견사를 달성군 개청 100주년을 맞아 지난 3월1일 개산대재와 함께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된 지 약 100년 만에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달성의 역사성을 되찾음과 함께 문화관광 자원으로 새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 대견사 중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재 보호란 명분 하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했던 점에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보존과 복원이라는 상반된 논쟁 속에서 대견사 중창이란 결실을 맺은 것이어서 전국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과거 영남지역 물류유통의 거점이자 전국의 보부상이 몰렸던 화원유원지 사문진나루터 역시 주막촌과 나루터가 복원되면서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비정 벽화마을 또한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마을을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창의적 경영마인드와 역발상적 사고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을 국내·외에 알리는데도 적잖게 기여하고 있는 동시에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등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Q 재난재해없는 안전 도시 조성책은?

A 민선 5기에 이어 7월1일 출범한 민선 6기에서도 재난재해 없는 안전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달성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달성군은 대구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의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 8개 구·군 가운데 가장 안전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민 행복도 조사에서도 전국 최상위권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달성군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연구센터에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2만1천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한 '주민행복도 조사'에서 전국 1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치안이 확보된 안전 도시, 재난재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군정 최대 목표로 삼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100년 역사의 도시 달성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구의 변방이 아니라 대구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만 군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겠습니다. 무엇보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좋은 명품도시 달성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밀알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을 섬기는 낮은 자세의 참일꾼이 되겠습니다.

서기대 편집장

비슬산권 관광개발사업 박차

대견사 중창에 이어 탐방로 · 편의시설 대대적 확충

달성군이 군 개청 100주년을 맞아 영남지역의 대표적 명산인 비슬산권역 개발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대견사 중창에 이어 탐방로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등 달성군의 대표 문화 ·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비슬산을 문화 · 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창조적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명받고 있는 비슬산 대견사

달성군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비슬산 관광개발사업의 중심에는 대견사 중창을 빠트릴 수 없다. 달성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12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와 협약을 맺었다. 대견사 중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선 동화사 측이, 달성군은 행정절차를 맡겠다는 게 핵심을 이룬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1일 대견사 개산대재를 갖고 정식 사찰에 등록하는 결실을 맺었다.

대견사 중창은 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돼 방치된 민족 문화유산을 재현해냄으로써 한민족의 문화 중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견사는 천연기념물인 비슬산암괴류(천연기념물 제435호)와 해발 1000m 고지의 천혜의 자연 경관, 비슬산 참꽃축제, 비슬산자

연휴양림, 비슬산 둘레길 등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관측된다. 달성군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영남지역의 대표적 문화 · 관광 명소로 조명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탐방로 · 편의시설 대대적 확충

달성군은 6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슬산휴양림 내 등산로 2km 구간에 공원등 80개를 설치하는 등 탐방객들의 편의 증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비슬산휴양림 내 통나무집에 대해선 시설 노후화 문제에 직면한 점을 감안해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개동을 대상으로 우선 신축하는 한편 잔여 통나무집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통해 점진적 신축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오토캠핑장 설치 등을 통해 비슬산자연휴양림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들어 새로운 가족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캠핑문화 확산에 발맞춰 비슬산휴양림(소재사 아래쪽)에 위치한 유가면 용리 일원의 군유지를 활용해 300여대 규모의 오토캠핑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달성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오토캠핑장과 주차장은 달성군의 대표 문화축제인 참꽃문화제 등 각종 행사 추진 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비슬산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달성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비슬산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중으로 이해된다. 명품(名品) 산림문화휴양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달성군은 아울러 비슬산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사업비 2억4천만 원을 들여 특수 제작된 친환경 전기셔틀 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비슬산 암괴류 등 천혜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코스를 조성해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셔틀버스에 달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 · 적용하는 등 관광 브랜드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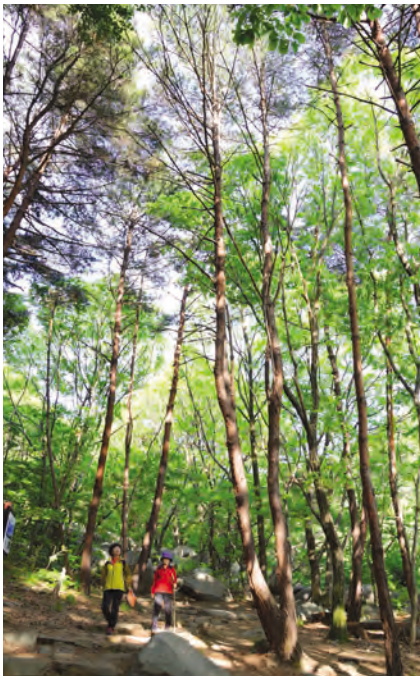
금수암 전망대 등 설치

탐방객을 위한 등산로와 전망대, 주차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산림휴양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탐방객들이 참꽃군락지에 쉽게 접근해 비슬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3억 원의 사업비로 참꽃군락지에 제3전망대와 데크로드를 설치한 것은 물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탐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비슬산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을 활용해 주차장 157면 증설사업에 뛰어든 게 대표적이다.

3억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금수암 전망대를 설치한 동시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비슬산 등산로 11km 구간을 새단장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정책을 달성군 실정에 맞춰 비슬산 관광개발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등 앞으로 달성군의 문화관광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면서 "달성군이 가진 자연유산과 문화자산을 활용해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대구의 미래중심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 배은정 기자
사진제공 | 달성군

‘사문진 주막촌’ 인파로 북적
‘마비정 벽화마을 누리길’ 등도 관광명소로 우뚝

달성군이 도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 1번지’로 각광받고 있다. 달성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마비정 벽화마을 누리길’과 ‘현풍백년도깨비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관광의 별’ 후보에 뽑히는가 하면 옛 영남 물류의 중심지였던 사문진 나루터에 조성한 ‘사문진 주막촌’에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올 한국관광의 별’ 후보에 이름을 올린 ‘마비정 벽화마을 누리길’과 ‘현풍백년 도깨비시장’ 은 달성군의 대표 볼거리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 중 ‘마비정 벽화마을 누리길’은 단순한 걷기 중심의 길이 아닌 유명관광지인 마비정 벽화마을과 숙박 및 체험이 가능한 화원자연휴양림, 남평문씨세거지, 대구수목원 등을 연계해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코스로 선보이고 있다.

‘현풍백년도깨비시장’은 100여년 역사의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 전국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관광의 별’은 부문별 최고의 관광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제정됐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사문진 주막촌’도 도심 속 휴식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문진 주막촌’은 옛 영남 물류의 중심지였던 사문진 나루터에 조성한 주막촌으로, KBS 1TV의 국민인기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 달성군편’을 통해 방영된 이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촌했다. 관광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겨울에만 평일 1천여 명, 주말에는 3천~4천여 명의 관광객들로 북적였다고 달성군 측은 귀띔했다.

지난 3월 22일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 당일에는 2만여 명의 구름 인파가 모여 인산인해도 이뤘다. 달성군 측은 ‘사문진 주막촌’이 전국적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주된 이유를 입지적 장점에서 찾고 있다.

화원동산 일원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은 물론 일대 자전거 이용객들의 휴식처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강변 풍경이 뛰어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달성군은 포토존 용도로 설치한 나룻배를 수상체험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안전검사 등을 최근 완료한 상태다. 향후 일반인이 탑승할 수 있는 50~60인승 규모의 유람선을 선보이는 등 관광 상품화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에게 옛 나루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옛 나루터와 주막촌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조성한 사문진 주막촌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분주히 이어지면서 지역의 역사문화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막촌 운영 수입금을 달성군 수입으로 거둬들임으로써 세수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글 | 배은정 기자

사진제공 | 달성군

달성군, 대구 성장 중심축으로 급부상
국가산단 ·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조성 활발

100년 역사의 달성군이 과거 대구 변방이란 오명을 벗고 대구경제를 먹여 살릴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달성군은 대구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중추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를 필두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등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서부터다.
재정자립도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실질적 빚 제로(ZERO)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며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대구 경제 중심축으로 급부상

달성군의 경쟁력은 우선 막강한 경제력에서 찾을 수 있다. 달성군의 경제창출규모는 대구 전체의 7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의 첫 국가산단으로 조성중인 대구국가산업단지에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향토기업은 물론 역외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대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민선 6기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대기업 유치가 현실화될 경우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래형첨단복합도시로 조명받고 있는 대구테크노폴리스도 대구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등 국책연구 및 R&D(연구개발)기관

등 대구경제를 책임질 미래 성장 동력의 입주가 활발한 이유에서다.

정주여건이 뛰어난 명품도시로도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구에서 가장 뜨거운 분양 열기를 나타내는 점이 이를 잘 입증해 준다.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이와 함께 계명대 · 경북대 특수대학원 등이 들어서면서 대구 교육의 새 중심지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재정 건전성 전국 최고

무차입경영을 통한 재정 건정성 확보 노력도 빛을 발하고 있다. 달성군은 국비 지원 부채를 제외한 잔여 부채를 지난해 연말 조기 상환하고 사실상 부채 제로(ZERO)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달성군은 지난 2005년 이후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연말기준 채무 원금은 29억 원으로, 이 중 지난해 수해복구비 부채 7천만 원, 낙동강 수질조기개선사업 부채 6억 원, 군청사 이전신축 부채 7억 2천만 원을 조기 상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추가경정예산에 남아있던 군청사 이전신축 채무에 대해서도 상환비용 10억 8천만 원 전액 편성을 통해 조기 상환하는 결실을 맺었다.

건전 재정 운용을 통한 정부 인센티브도 잇달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재정분석 우수단체에 선정돼 인센티브로 교부세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도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단체에 선정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살림살이를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했는가를 분석 · 평가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

규제 타파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

달성군은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강도높은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타파에도 본격 시동을 건 상태다.

'달성군 규제개혁 추진단'은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군 자체규제사항 등 모든 규제를 재검토하고 개혁하는 총괄 역할을 맡아 규제등록 및 관리,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중앙부처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의중으로 이해된다.

기업 유치 등에 따른 지방세 수입도 매년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달성군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229만9천 원으로, 대구지역 8개 구 · 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량 사업체 입주가 그 만큼 활발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 취득세 세율인하 정책은 물론 지역경기 장기 불황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지방세수 증가폭이 연 평균 10% 이상씩 늘어났다는 게 달성군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달성군이 지난해 징수한 지방세는 1천 963억원으로, 전년보다 179억원(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이 이처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대구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달성2차 산업단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생산 활동과 이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가 매우 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2년부터 본격화된 아파트 준공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의 가동률이 본궤도에 오른 것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방세 수입은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올해로 군 개청 100년을 맞은 달성군은 과거 100년을 지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선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달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배은정 기자

유가찹쌀 전국적 명성
수박 · 참외 · 토마토도 절찬리에 판매

수박과 참외, 토마토는 달성군의 대표 농산물로 꼽힌다. 달성군은 아울러 유가면 일대에서 출하되는 찹쌀이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다.

달성군의 수박 주산지는 옥포 일대다. 옥포수박작목반에는 6월 현재 85농가에서 117ha 규모로 수박농사를 짓고 있다. 시설 하우스로는 1천770동에 달하는 것이다. 작목반에서는 '옥포신당수박'이란 브랜드로 시중에 선보이고 있다. 출하는 매년 5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도가 높아 '으뜸 수박'으로 이름이 높다. 섬유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과질이 부드러우며 수박향이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조량이 풍부한 덕분에 색깔과 모양이 선명하고 평균 당도만 14~15%에 달한다고 작목반 측은 설명한다. 능금산, 아르기닌, 비타민, 시트릴린 등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이뇨작용과 갈증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참외와 토마토도 생산 농가 비중이 높다. 참외재배에는 현재 하빈 일대에서만 18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하빈지역은 토질이 점질사양토이며, 고온 건조한 기후를 나타내 참외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빈에서 출하되는 '벌수정참외'는 칼슘 함량이 높고 색깔과 모양, 당도가 뛰어나 유통시장에서 호가(好價)에 거래되고 있다.

토마토는 논공일대를 중심으로 올해 기준으로 200여 농가에서 200ha 규모로 재배에 나서고 있다. 이 중 '논공토마토'는 고품질 친환경 토마토로 명성이 높다. 과육이 단단하며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비타민과 무기질, 유기산 등이 풍부한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측은 전했다.

달성군에서 출하되는 찹쌀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특히 유가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찹쌀은 전국에서 수요가 몰릴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다.

유가찹쌀은 신선찰벼 등 우수품종을 집단 재배방식으로 생산해 찰기가 뛰어나고 순도가 높아 전국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6월 현재 유가면 일대 300여 농가에서 200ha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수확된 찹쌀은 유가농협에서 전량 수매해 자체 포장 등을 통해 전국의 주요 농협하나로마트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1 · 2 · 4 · 8 · 10 · 20kg 등 주로 소포장 형태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유가농협 관계자는 "유가찹쌀은 비슬산의 맑은 물을 이용해 재배하고 타 품종의 혼입없이 전량 수매를 거쳐 저온방식으로 저장해 색깔이 희고 윤기가 뛰어난 특징을 지닌다"면서 "찰기가 뛰어난데다 떡을 만들 때 빨리 굳지 않고 식감이 우수해 최고 품질의 찹쌀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글 | 배은정 기자
사진제공 | 달성군

대구국가산단, 산업용지 분양 '스타트'
대구 경제 책임질 동력 기대감 확산

대구 경제의 새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구국가산단의 산업용지 분양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다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공장 착공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산업용지 부족 탓에 공장 신·증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 적기의 용지 공급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낼 국내외 우량 기업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산업용지 65만㎡ 우선 공급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위해 산업용지 65만㎡를 우선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산업용지는 37필지 65만㎡ 규모로, 세부적으로 첨단기계(한국표준산업분류 C27, 28, 29) 6필지 129천㎡, 미래형자동차(한국표준산업분류상 C30) 31필지 516천㎡에 달한다.

필지별 면적은 적게는 4천852㎡에서 많게는 6만5천683㎡ 규모이며, 분양가격은 도심권 산업단지로는 비교적 저렴한 3.3㎡당 93만7천원 수준이다.

분양신청은 최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받았다. 경영, 기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유치기업평가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7월 17일 입주업체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이나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역외 투자기업 유치 주력

시는 이번 분양과 함께 대기업을 비롯한 글로벌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고 투자유치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앞서 대구의 경우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된 이후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해 지역 기업들의 역외 유출이 심화된 데다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군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첫 분양에 들어간 대구국가산업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260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건의, 지정된 대구 첫 국가산업단지라는 각별한 의미도 지닌다.

대구국가산단은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총면적 854만8천㎡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만 1조7천572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산단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5천920천㎡)은 오는 2016년까지 완료되며, 2단계 사업(2천628천㎡)은 2018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6월 8일 기준으로 공정률은 27% 수준이다.

대구지역 첫 국가산단으로 기대감 확산

대구국가산단은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IC와 연접해 있고 대구도심과 연결하는 직선 4차선 도로 개통이 오는 9월로 예정돼 있어 앞으로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구미를 비롯한 포항, 울산, 창원국가산단과 1시간대 접근할 수 있고, 김해공항은 물론 부산, 울산항만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단 인근에 위치한 지능형자동차부품주행시험장에는 하이드로플레이닝 시험로, ITS고속주회로, 특수로, 원선회로, 외부소음 시험로 등을 갖추고 있어 국제공인 인증시험 등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지역에는 현재 3000여 핵심 부품 강소기업이 입지해 부품 조달 네트워크가 발달돼있는 데다 대학 및 특성화고 등에서 연간 5만여 명의 이공계 우수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등 부품 공급 및 우수 인력 확보에도 용의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가 연구개발(R&D)기관이 인근의 테크노폴리스에 입주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미의 IT, 창원의 기계산업, 대구의 부품소재산업이 대구국가산단에서 연계 및 융합할 수 있는 등 첨단 및 창조산업으로 꽃 피울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여건도 자랑한다.

최희송 대구시 산업입지과장은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단지형 외국인전용단지, 물산업 클러스터, 뿌리산업 집적지구 등 특화단지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면서 "미래 성장 동력원을 마련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산업을 이끌 핵심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글 | 배은정 기자

사진제공 | 달성군

“시민과 동고동락한 10년,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민선 4 · 5기 대구를 이끈 김범일 전(前) 시장은 지난 6월 26일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대구시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지난 1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 대구시장은 시장직 이임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30분 시청 상황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큰 일을 다 마무리 하지 못한 채 떠나 아쉬움도 크다"면서 "그동안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와 성공,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등 대구 미래성장동력 마련, 그리고 부채 감축을 통한 재정 건전화 등 시정 추진에 소매를 걷고 함께 해 준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선 6기 권영진 시장을 도와 대구 발전에 힘을 보태달라는 주문도 빠트리지 않았다.

김 전 시장은 "젊고 역동성을 갖춘 신임 시장이 '글로벌 창조도시 대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구발전을 위해 미력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답변

퇴임 후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요?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구에 머물면서 대구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2년 후 열리는 총선에 출마할 계획은?

지금까지의 공직 생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0년간 소회 중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인지?

제가 취임한 당시는 대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대구 경제는 환자 수준이었다. 중앙 월간지에서 '성장을 멈춘 절망의 도시 대구'라고 할 정도였다. 되돌아보면 신성장동력의 부재,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 부족, 주력산업의 침체, 각종 사고로 인한 사기저하, 부채 전국 1위 등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을 열심히 차리자'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대구는 병은 치료되고 체력 또한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에게 차린 상을 직접 올리는 일이 부족했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구의 장기 발전을 보면 이제는 내리막은 거치고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만큼 보람도 느낀다.

가장 보람 있었던 한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도 2007년 3월 몸바샤에서의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성공을 들 수 있겠다. 인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기내에서 중앙지 신문에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소식이 전면 톱 기사로 났는데, 특히 '대구가 자랑스럽다'라는 제목을 봤을 때 가슴이 찡했다.

전국 광역시·도 중 대구의 국제화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외국에 나가면 대구를 잘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에 귀를 기울여 보자고 생각해 돈은 적게 들고 홍보효과가 큰 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세계에너지총회, 세계물포럼, 세계행정학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게 되었다.

대구는 이제 세계화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신공항 건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결말을 맺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안타깝다. 영남권이 힘을 합쳐서 꼭 관철되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대구는 세계화에 뒤져있다고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에게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10년 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권영진 시장에게 인수인계한 것이 있는지?

몇 번 만났고, 통화도 했다. 신임 시장이 필요해서 요청한다면 도와드리겠다. 시장은 큰 머슴이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에서 새 시장에게 힘을 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아쉬웠던 점은?

신공항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쉽다. 새 시장을 중심으로 좋은 안(案)을 만들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저 또한 필요하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배은정 기자

섬김의 리더십

리더십은 기업 경영이나 국가 운영에서 언제나 최대 화두다. 리더의 지략과 전략에 따라 기업, 사회, 국가의 운명은 좌우되기 마련이다.

로마제국은 다민족문화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1000년의 번영을 누렸고, 미국 역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며 세계 최강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리더십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과거 수렵채집사회에서는 무리 중 힘이 센 사람이 리더가 됐다. 중세사회에서는 난세를 평정한 장군이나 갑자기 나타난 슈퍼맨 같은 영웅이 세상을 지배했다. 그런가 하면 산업화 시대에서는 카리스마를 겸비한 소수의 엘리트가 두각을 보였다.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어떤 리더십이 통할까.

힘이나 권력을 앞세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대접받는 시대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리더와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장과 상당수 선원들은 승객과 배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며 먼저 탈출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야말로 검 · 경의 수사망을 뚫고 도피행각까지 벌이고 있지 않는가.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창조적 미래를 위해 과거와의 대화가 필요하고, 과거의 교훈을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우리나라 역사 상 애민사상을 몸소 실천한 지도자로는 세종대왕이 자주 거론된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장 중시하고 중대사를 결정할 때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열린 토론을 통해 중지를 모았다고 한다. 심지어는 백성의 찬성으로 세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소수의 지주와 관료들이 반대하자 몇 년의 시간을 두고 보류했다고 한다.

철저한 애민을 바탕으로 한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한 셈이다. 때마침 우리나라는 지난 6 · 4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시대 꽃을 피울 새 리더를 뽑았다.

7월부터는 민선 6기 닻도 올렸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에서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권위적 리더십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고 있다. 민선 6기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주민들 위에 굴림하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승객을 버리고 나만 살겠다며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같은 리더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시 · 도민, 그리고 구 · 군민을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리더만이 필요하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직면한 시련을 이겨나가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어간다"고 했다.

'창조적 소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창조적 사회'는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 국민을 주인처럼 섬길 때, 국민의 머슴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민선 6기 새 단체장들도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방자치시대가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진구
경영저널 대표이사 · 발행인

경북 경산 출신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

경북 경산 출신의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이 지난 6월 8일 청와대 신임 홍보수석에 임명됐다. 신임 윤 홍보 수석은 대구 심인고와 경북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YTN 출범 당시 서울신문에서 YTN으로 옮겨 정치부장과 편집부국장, 보도국장 등을 두루 거친 정통 언론인 출신이다. 지난해부터는 YTN플러스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일해 왔다.

이정현 전(前) 청와대 홍보수석 후임에 윤 수석이 발탁된 것은 이 같은 언론계의 풍부한 경험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홍보수석은 새누리당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동향(同鄕)으로, 경북 경산이 고향이다. 친박계 핵심인 김재원 의원(군위 · 의성 · 청송)과는 고교 선후배 관계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윤 홍보수석 임명 배경과 관련,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토대로 균형감 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발휘해 온 분"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개조 작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소통의 적임자로 판단해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윤 홍보수석은 여야를 막론하고 두터운 인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YTN 기자 당시 여야 인사와 폭넓게 교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류중일 삼성라이온즈 감독,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류중일 삼성라이온즈 감독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457호 회원인 류 감독은 지난해 연말 중증 장애아동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해 지역 내 최고액 기부자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로써 류 감독은 국내 스포츠인 가운데 5번째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프로레슬러 이왕표, 마라토너 이봉주, 씨름선수 출신 이만기 인제대 교수, 박정태 전 롯데자이언츠 2군 감독이 스포츠인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류 감독은 "그동안 야구팬에게 받았던 사랑에 보답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이웃 사랑을 전달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어 홍보대사를 맡게 됐다"면서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대 편집위원

이종호 (사)대구디자인협회 회장

“대구디자인산업 발전과 회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

이종호(두손기획 대표) (사)대구디자인협회 회장은 지역 디자인업계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80년대 계명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이 회장은 사회초년생 시절 당시 로망이었던 수도권지역 중견 디자인업체로부터의 입사 권유를 뿌리치고 지역에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한다. 고향 대구에서 디자인업계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는 대구디자인협회 회장에 당선된 이후부터는 지역의 디자인산업 발전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회장은 “대구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대구시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면서 “향토디자인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는 등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대구디자인협회를 소개한다면?

시각 · 산업 · 공예디자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와 관련 업체 대표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대구지역 디자인산업 진흥 ·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 6월 현재 대구에서 활동 중인 디자인 작가와 기업체 대표 86명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대구디자인협회가 설립된 것은 지난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협회 설립 초창기엔 대구상공회의소로부터 지원을 받아오다 2011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이후부터는 대구시에서 관리 · 감독을 맡고 있다. 시 예산도 지원받고 있다.

대구디자인협회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지난 2010년 선거를 통해 회장에 당선됐으며, 사단법인 체재 전환 이후 현재 연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장 취임이후 지역의 디자

인 산업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디자인 산업 환경은 어떠한가?

매우 열악하다. 정부나 대구시 지원이 원활하지 않는 탓에 대부분의 업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자인은 무형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고 있다. 무형의 가치를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값을 치르지 않고 그저 얻으려고 한다. 이래선 곤란하다. 아무리 무형의 가치라고 하더라도 배워서 습득하거나 부단한 노력,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퀄리티(quality)를 높여온 만큼 그 가치 창출에 대해 제대로 인정해 줘야한다.

역외업체의 시장 진출은 어떠한가?

매우 활발하다. 예컨대 과거 이름만 말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향토 한 백화점에서 CI(Corporate Identity)작업을 서울의 한 대형업체에 맡긴 적이 있다. 당시 돈으로 1억5천만 원을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도 과거 1억 원을 들여 역외업체에 CI를 의뢰했었다. 쉽게 말해 큰 일감은 죄다 서울업체에서 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등 수도권업체의 지역 진출이 이처럼 활발한 탓에 향토 디자인업체들은 설자리를 갈수록 잃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디자인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지역 디자인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른바 '탈(脫)대구 러시'는 경쟁력을 갖춘 향토업체일수록 만연되고 있는 추세다.

'시장 파이'를 키워 이들을 붙잡아야만 대구 디자인산업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달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지구 제16대 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사랑나눔전국네트워크 대구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눔사랑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정당인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다. 정치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은 비록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 2004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현재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좌우명은?

신의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의와 의리는 사람이 지켜야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보다는 명예를 소중하게 여긴다.

글 | 서용준 편집위원
사진 | 김원현 기자

공기업 부채 눈덩이 · 부채 감축에 빨간불

경북도 산하 공기업도 경고등 … 정부 고강도 부채 경감책 내놔

18개 부채 중점관리대상 공기업들이 지난해 이자비용으로만 9조 원을 지출하는 등 정부의 공기업 부채 경감 계획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는 일일 기준으로 이자 비용만 247억 원을 지불한 것이다. 이자 비용이 이 처럼 급증한 것은 해당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최근 들어 급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금융권 이자 비용 급증

기재부의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는 436조1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자 지급액만 연간 9조74억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해를 거듭할 수 록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진다.

이를 입증하 듯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공기업은 석탄공사를 비롯해 LH, 한전, 광물자원공사 등 4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2년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1미만은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어 계속 기업으로의 가치가 떨어짐을 의미한다.

최근 4년간(2010~2013년) 기준으로 연도별로 볼 때 18개 부

채 중점관리대상 공기업의 이자 지급액은 지난 2010년 7조5천162억 원에서 2011년 7조8천261억 원과 2012년 8조8천775억 원에 이어 지난해엔 9조74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 2조3천4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공사와 LH도 각각 9천661억 원, 7천97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는 이자를 주고 상환해야하는 금융부채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비금융 부채로 나눠지는데, 금융부채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부담이 커다는 것을 뜻한다.

전국 지자체 산하 396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연말 기준 부채 규모는 74조323억 원으로 전년의 72조2천33억 원보다 1조8천29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47조3천억원과 비교해 5년 새 56.5%(27조원) 급증한 것이다.

경북도 산하 공기업 부채 규모도 급증 추세

이런 현상은 지방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경북도 산하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최근들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경북도 재정건전성을 압박하는 주범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따르면 지역개발자금 조달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경북지역개발기금의 지난해 부채는 1조306억1천2백만 원으로, 전년의 9천495억9천9백만 원에 비해 81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부채 규모가 대폭 늘어난 나머지 경북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기준 경북관광공사의 부채는 1천612억2천만 원으로, 전년의 231억원에 비해 수직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경북개발공사도 364억900만 원 늘어난 5천242억8천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방공기업 11곳의 부채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이들 지방공기업의 부채 총액(49조4천553억원)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6.8%를 차지하는 등 경영개선에 적색등이 켜진 모습이다.

부채 1조원 규모 이상 공기업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지난해 영업적자에 허덕이기도 했다.

정부, 공기업 경영 정상화 계획 수립

사정이 이러하자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비율 완화에 중점을 둔 중장기 계획을 내놓고 있다.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2012년 말 221.1%에서 2017년 187.3%로 낮춘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또 빚이 많고 방만 경영이 심각한 5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실적 부진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등의 해임건의와 임금 동결 등의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들도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따라 자구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분위기다. 예컨대 한국전력은 보유 부동산 매각 등으로 오는 2017년까지 부채 14조7천억원 가량을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LH 역시 사채 순발행을 하지 않는 동시에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등 부채 털어내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경감 자구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자산 헐값 매각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데다 이마저도 관련 시장에서 매입 의사가 활발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까닭에서다.

일각에선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부채 감축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민경량 편집위원

전문의에게 듣는다

내 머릿 속에 뇌동맥류가 발견된다면...

"뇌동맥류의 가장 큰 문제는 갑작스러운 파열로 인한 엄청난 뇌출혈이다"

심장에서 뻗어 나와 목을 타고 머리로 올라와 뇌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은 뇌의 바닥에서 굵은 가지를 치며 나눠진다. 이 때 나눠지는 혈관의 이음새가 약한 부위여서 평생 압력을 가진 혈액이 이 이음새를 지나 순환하게 됨으로서 약한 부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가 생기게 된다.

경북대병원 박재찬 신경외과 교수는 "뇌동맥류의 가장 큰 문제는 갑작스러운 파열로 인한 엄청난 뇌출혈이다"고 강조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높은 압력의 혈액이 머리 안, 특히 뇌의 바닥에서 쏟아져 나와 뇌압이 상승하고 뇌손상이 야기된다. 이로 인해 1/3 이상의 환자가 그 자리에서 혹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게 된다. 생존하는 이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장애를 안고 살게 된다.

첨단 장비로 예방가능

이렇게 치명적인 뇌동맥류가 사전에 진단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동맥류와 관계 없는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 혹은 건강검진을 위해 뇌 자기공명영상(MRI)를 촬영하면서 뇌혈관을 보는 뇌 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을 함께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뇌동맥류가 내 머릿 속에 발견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다. 미리 말해두자면 약물 치료는 없다.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없다. 이 때에는 정밀한 뇌혈관 촬영이 필요하다. 다리 동맥을 통해 '카테터'라고 불리는 가는 관을 목의 경동맥 까지 집어넣은 다음 조영제를 주사하는 혈관조영술이나 혹은 최소한 팔에 조영제 주사를 맞으며 촬영하는

CT 혈관 촬영을 시행한다.

이로써 어느 위치에 있으며 표면에 울퉁불퉁한 모양은 없는지, 그리고 가까이에서 분지하는 혈관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MRA에서 뇌동맥류라고 판단된 경우에도 이렇게 정밀 검사를 통해 뇌동맥류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혈관이 팽배해 있는 경우로 판정되어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조영제를 투여해 뇌혈관을 촬영하는 사진들은 현재로서는 가장 정밀한 촬영 기법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뇌혈관 자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혈액이 차서 흘러가는 혈관 안으로 조영제를 주입한 후 X-레이를 쏘아 사진을 찍은 것으로 마치 감나무의 그림자를 보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진작 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을 정밀 예측 할 수 있는 혈관의 벽 두께, 뇌동맥류의 벽 두께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러다 보니 혈관조영술에서 보여지는 뇌동맥류의 특징을 통해 파열 위험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뿐이다. 나무에 달린 감의 그림자를 보고 떨어질 때가 임박한 것인지, 단단하게 달린 떫은 감인지 추측하는 상황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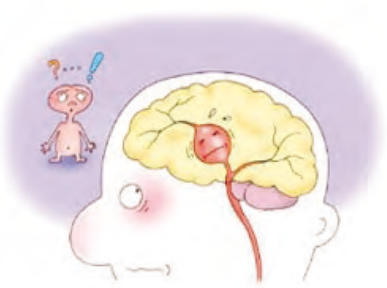
과거 뇌동맥류는 머릿 속의 시한폭탄으로 비유되어, 모든 뇌동맥류를 치료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이러한 기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유럽을 중심으로한 전 세계 161개의 병원이 참여해 4천여명의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들을 관찰, 치료한 결과 대부분의 작은 동맥류는 터지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위험성에 따라 치료

현재 여러 뇌동맥류 치료 지침에서는 혈관조영술을 분석해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이 높은 경우 치료를 권한다.

첫 째는 뇌동맥류의 직경이 4㎜ 이상, 4㎜ 미만의 경우라도 뇌동맥류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이거나, 작은 크기에도 잘 터지는 전교통동맥에 생긴 경우 치료를 해야 한다.

박 교수는 "발견된 뇌동맥류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으로는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리에 있는 동맥을 통해 카테터라는 가는 관을 뇌동맥류 안까지 밀어 넣고 코일을 집어 넣어 동맥류를 채우는 코일 색전술을 시행한다.



또는 머리뼈를 여는 개두수술을 통해 뇌동맥류의 경부(정상혈관 부위와 맞닿아 있는 뇌동맥류 부위)에 티타늄으로 제작된 동맥류 클립을 물려 동맥류를 차단하는 클리핑을 시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개두수술의 방법도 여러 가지 저침습적인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눈썹의 위쪽 가장자리를 따라 3.5㎝의 절개선이면 2㎝ 직경의 개두수술이 가능하고 이러한 작은 통로를 통해 뇌동맥류 수술이 가능하다.

입구가 좁은 투명한 병 속에 돛을 활짝 편 범선을 집어 넣는 것과 같이 까다롭고,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다행히 경북대병원 신경외과는 눈썹절개를 이용한 최소 침습수술에 있어서 기술의 완성도, 연간 수술 증례 수, 연구 논문의 발표에 있어서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복강 내의 여러 가지 수술들이 저침습성의 수술들로 발전되고 있다. 박 교수는 "복강경을 이용하는 수술이나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을 이용하는 수술이 있다. 그러나 뇌수술은 아직 로봇수술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복강 내의 수술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수술 장비와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하게 될 미래에는 수술 로봇을 이용해 보다 정밀하고 비침습적으로 수술할 수 있으리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 경북대병원
박재찬 신경외과 교수

대구시 '쿨맵시' 홍보활동 대대적 전개

환경부와 대구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 생활 범국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여름철 냉방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쿨맵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옷차림인 '쿨맵시'는 시원하고 멋스러운 의미의 '쿨(Cool)'과 옷 모양새를 의미하는 순 우리말 '맵시'가 결합된 신조어다. 시원하면서도 예절과 건강, 패션까지 고려한 옷차림을 뜻한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재킷을 입지 않아도 격식이 있는 비즈니스 복장이 대표적인 쿨맵시 스타일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노타이, 반팔 셔츠, 무릎길이 스커트 등 간편하고 시원한 쿨맵시 복장은 체감온도를 2℃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이 경우 에너지 14%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 올해 대구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43만6천t CO2)의 14%(6만1천40t CO2)를 절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력량으로 14만3천962MWh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소나무 약 2천20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냉방비용 절약은 물론 냉방병 예방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시는 이에 따라 쿨맵시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나만의 비법(4대 실천과제 : 여름엔 쿨맵시, 겨울엔 온맵시 · 일주일에 한번 대중교통이용 · 그린터치 설치 · 음식물도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이 담긴 포스터를 배포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부섭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쿨맵시 실천으로 여름철 전력 블랙아웃 예방과 온실가스 감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백재호 편집위원

버리는 것은 물 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인의 평균 하루 물 소비량은 약 350L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40% 많은 1인당 평균 약 400L의
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10%만 아껴써도 연간 3천1백억원이 절약
된다고 합니다. 무의미하게 틀어 놓은 수도꼭지
이젠, 잠궈야 할 때입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경북 농가 규모 계속 줄어든다

농업 종사인구 · 농가 규모 10년 새 18.0%, 10.0%씩 각각 감소

경북지역의 농업 종사인구와 농가 규모가 10년 새 18.0%, 10.0%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전체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은 40.9%로, 10년 전의 31.5%보다 9.4%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경북지역의 농업 종사 인구와 농가규모를 파악한 결과, 경북지역의 농가 인구 감소세는 확연한 양상을 띠었다.

농가수 지속적 감소 추세

경북도내 농가 규모는 해를 거듭할 수 록 감소 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북의 농가수는 19만5천108가구로, 10년의 전의 21만6천851가구보다 10.0% 줄어들었다. 이는 도내 전체 가구수(105만1천309가구)의 18.6%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 2003년의 전체 가구수 대비 농가수(23.2%)와 비교하면 10년 새 4.6%p 감소한 것이다.
시·군별 농가 규모를 살펴보면 경주시가 1만6천27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안동시 1만5천142가구, 상주시 1만4천975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해 농가 감소 폭이 컸던 지역은 영천시(-20.1%), 영덕군(-19.9), 군위군(-18.6%) 순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도 급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규모도 뚜렷한 하락곡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북의 농가인구는 45만8천791명으로 10년 새 18.0% 급감했다고 동북지방통계청은 밝혔다.
이는 도내 전체 인구(264만2천329명)의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농가인구 비중으로는 5.7%에 달하는 규모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1만2천348명 많은 23만5천569명으로 집계됐다. 가구형태별로는 2인 가구가 전체의 과반 이상인 53.2%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17.3%)와 3인 가구(15.3%)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10년 전에 비해 2인가구는 46%p 증가한 반면 4인가구 이상은 6.1%p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농가 평균 가구원수는 0.2명 줄어든 2.4명에 그쳤다.
농가 경영주 연령은 70세 이상이 3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0대 29.8%, 50대 22.1% 순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에 비해 70세 이상 경영주는 16.7%p 증가했지만 40세 미만 경영주는 1.6%p 감소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이 기간 유소년인구(0~14세)와 15~64세 농가인구는 각각 39.8%, 27.9%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는 물론 탈농(脫農)현상 가중 등의 여파로 농촌사회에서의 고령층 인구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억대 매출농가 급증

도내 농업 종사 가구의 경영구조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업농가 비중은 62.5%(12만2천9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53.2% 수준을 보였다.
이와 함께 경지규모 1.0ha미만 농가 비중은 66.1%(12만8950가구)를 차지했으며, 반대로 5.0ha 이상은 2.0%(3천869가구)로 파악됐다.

전업농 육성 등에 따른 대단위 경작 농가가 늘어나면서 5.0ha이상 경작농가도 8년 전에 비해 29.8% 증가한 3천900가구에 달했다.
경작면적 0.5ha미만 농가가 많은 것은 고령가구의 경지 축소, 도시근로자의 은퇴 후 귀농 및 출입경작 농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영농형태로는 논벼재배 농가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과수(28.7%), 채소(19.6%), 축산(6.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논벼농가의 경우 10년 새 7.6%p 감소세를, 반대로 과수농가는 5.1%p 늘어난 것이다.

홍영락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북도내 연간 1억 원 이상 농축산물 매출 농가는 5천494가구로 10년 전에 비해 543.3% 급증했다"면서 "전업농 육성 등의 영향으로 대단위 경작 농가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윤정현 편집위원

대구공공기관 중기 제품 구매 외면 **대중소기업 상생 '헛구호'**

대구지역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관련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8천141억9천800만원으로, 총 구매액(1조1034억7천100만원)의 73.79%에 그쳤다. 이는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위에 그친 것이다.

인천이 꼴찌인 17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인천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은 전체 구매액 1조6천116억8천200만원의 60.72%인 9천786억6천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 제품 구매를 늘렸다는 의미다.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이 대구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역 공공기관은 이에 앞서 2011년과 2012년에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중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등 이런 현상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구지역 공공기관의 지난 2011년과 2012년의 중소기업 제품 비중은 각각 전체 구매액의 64.35%와 67.3%에 그치는 등 전국 주요 시·도 가운데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지역 건설업계에도 엇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외 대형 건설업체들의 지역 시장 진출이 활발하면서 향토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등 설자리를 갈수록 잃고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에서 건설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익명의 한 기업인은 "지역에서 발주되는 관급 공사 상당수가 지역제한이 없는 나머지 외지업체 참여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역외 대형 업체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한편 내고장알리미가 이번에 공개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충북이 전체 구매액의 90.1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강원(89.49%)과 대전(89.42%), 제주(89.18%)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편집국〉

전국현황

지자체명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단위: %)	중기제품 구매액 (단위: 백만원)	총 구매액 (단위: 백만원)
서 울	73.91	2,441,872	3,303,795
부 산	81.38	965,745	1,186,638
대 구	73.79	814,198	1,103,471
인 천	60.72	978,668	1,611,682
광 주	81.55	464,114	569,137
대 전	89.42	459,619	513,986
울 산	86.32	539,758	625,266
세 종	88.80	94,577	106,508
경 기	86.48	4,387,555	5,073,742
강 원	89.49	2,186,993	2,443,890
충 북	90.19	1,454,054	1,612,173
충 남	88.41	2,071,522	2,342,969
전 북	93.86	1,991,482	2,121,834
전 남	92.97	3,276,669	3,524,285
경 북	86.83	3,250,975	3,744,004
경 남	87.88	3,030,370	3,448,337
제 주	89.18	790,603	886,492
총 계		29,198,774	34,218,209

휴양과 레저의 도시 "안동"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의 특별한 체험

체험관광은 안동으로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2014

9.26(금)~10.5(일)

촌두부 · 청국장 전문점 '정강희두부마을'

부드럽고 담백한 맛 일품
국내산 콩으로 만든 촌두부 · 청국장
정직한 맛에다 착한 가격

본보는 천편일률적인 음식점 정보를 소개하는데서 벗어나 고객과 독자의 입장, 그리고 맛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을 심층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음식명가(飮食名家)를 연재하고 있다.

음식명가는 대구 · 경북을 대표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방법을 활용해 선정하고 있다. 시설과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외형적인 단서인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함 등 약속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인 '신뢰성',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확신성', 접근가능성과 고객에 대한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이번 평가 결과, 경영저널 음식명가 5호에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위치한 촌두부 · 청국장 전문점 '정강희두부마을'이 영예를 안았다.

건강과 장수는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거리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누구나 바란다. 웰빙 푸드를 찾아 전국 곳곳의 맛집을 찾아다는 수고도 아끼지 않는다.

음식점들도 하나같이 웰빙을 강조한 메뉴를 속속 내놓고 있다. 달성군에도 웰빙을 모토로 한 맛집이 있다. 다사읍 죽곡리에 위치한 촌두부 · 청국장 전문점 '정강희두부마을'.

음식 맛의 첫 번째 비결은 엄선된 식재료에 있다. '정강희두부마을'은 100% 국내산 콩으로 직접 청국장을 띄우고 두부를 만들어 손님상을 차린다. 심지어는 나물반찬을 만들때 감초처럼 꼭 필요한 참기름도 국내산만을 고집한다.

청국장과 두부 원료가 되는 메주콩은 영주, 예천, 청도에서 농가와 직거래로 구매하고 있다. 농가 직구매를 고집하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일등급 국내산 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서다. 유통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보너스다.

정강희((48 · 여) 주인장은 손수 두부를 만들기 위해 매일 오전 5시부터 영업 준비를 한다. 손수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어 손님상에 올린다. 순두부를 응고시킬 땐 해양심층수와 천연간수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일까. 촌두부 맛을 제대로 살린 정직한 맛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그 맛이 일품이다.

청국장도 빼어난 맛을 자랑한다. '정강희두부마을'에선 삶은 메주콩을 72시간 정도 발효시켜 청국장을 띄우고 있다. 맛있는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 식당 옆 한 켠에 황토방도 마련하고 있다. 황토방에서 청국장을 띄워야 그 맛이 제대로 난단다. 그 맛에 반할 정도다. 구수한 청국장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정강희두부마을'에선 이색 청국장요리도 맛볼 수 있다. 주인장 추천 메뉴인 생청국장비빔밥을 빠트릴 수 없다. 직접 키운 오이, 당근 등 야채 · 채소류와 참나물, 무청 시래기 위에 생청국장이 듬뿍 담겨 나온다. 생청국장을 넣은 비빔밥은 전국에서도 드문 요리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그 맛은 가히 빼어나다. 몸에 좋은 것은 당연지사.

'정강희두부마을'의 자랑거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손님상에 차려지는 밑반찬 중 나물류는 죄다 식당 인근의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 텃밭 규모만 대략 3천306㎡(1천평)에 달한다. 모든 요리는 MSG 등 화학 조미료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손님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주인장의 정직한 마음이 묻어난다.

'정강희두부마을'은 지난 2009년 5월 문을 열었다. 집밥처럼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손님상을 차리고 싶어서였다는 게 음식점 창업에 도전장을 내민 주된 이유란다.

두부와 청국장을 아이템으로 삼은 것은 콩으로 만든 요리는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건강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인장의 콩 예찬은 식을 줄 모른다. 대표적인 슬로푸드라며 자랑이 이만 저만 아니다.

이색 메뉴에도 눈길이 쏠린다. '들깨 순두부' 요리는 침샘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부드러운 순두부에다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국내산 들깨를 듬뿍 넣어 그 맛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면 이번엔 착한 음식가격에 또 한 번 놀란다. 손님들의 얄팍한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철저히 박리다매 원칙을 지킨단다.

예컨대 초당부두 한 접시는 5천 원에 불과하다. 청국장 한상차림과 두부전골도 1인분에 각각 7천 원, 8천 원이면 맛볼 수 있다.

맛집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들어선 전국에서 식도락가들도 즐겨 찾고 있단다. 주인장의 장래 꿈은 너무나 소박하다. 건강한 음식, 손님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정직한 음식점으로 사랑받고 싶단다. 손님들에게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곧 진심(眞心)으로 대하겠다는 것이다.

정강희 주인장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다"면서 "손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솔푸드(soul food)를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강희두부마을'은 달성군이 지정한 '참맛집'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참맛집'은 달성지역 내 음식점 1천700여곳 가운데 엄선된 14개 맛집만 선정돼 있다. 달성군이 인정하는 맛집이란 뜻이다.

글 | 배은정 기자
사진 | 김원현 기자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148-4 TEL. 053)592-4900

Uljin Waterpia Festival 2014

생태 문화 관광의 울진!

제4회 울진 워터피아 페스티벌

www.waterpia.uljin.go.kr

기 간 | 2014. 7. 26(토) ~ 8. 3(일) [9일간]

장 소 | 울진 염전해변, 엑스포공원, 연호공원 등

주 최 | 울진군 주 관 | 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 집행위원회

후 원 | 경상북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해수욕 BEACH

5월 산업활동 부진 · 경기회복 주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하락
5월 경상수지는 27개월 연속 흑자행진

광공업생산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하는 등 5월 실물경제가 지난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뒷걸음치며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었다.

5월 중 최대 6일간에 걸친 징검다리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게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생산 규모가 감소한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는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5월 산업생산 두 달 연속 감소

통계청이 지난 6월27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산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1.0% 감소하며 지난 4월(-0.6%)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광공업생산은 2.7% 줄어 지난 2008년 12월(-

10.5%)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내수출하(-2.4%)와 수출출하(-1.3%), 생산자제품출하(-1.9%), 생산자제품재고(-2.2%) 역시 모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 또한 120.6%를 기록해 전월보다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국면의 변환을 판단할 수 있는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 역시 출하 증가폭(2.3%→-0.1%)과 재고 증가폭(8.0%→5.8%) 모두 둔화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기계류(-0.4%)와 운송장비(-4.0%)에서 모두 줄어 전달보다 1.4% 감소했다.

같은 기간 향후 경기 국면을 전망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하락했으며,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또한 0.4포인트 떨어지며 4월(-0.3포인트)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5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7%로, 전월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산업활동이 이처럼 저조했던 원인으로는 지난 5월 초 이어진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7.4%)와 반도체 · 부품(-4.7%) 등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주춤했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휴에 따른 생산 활동 감소세를 배제한다면 광공업생산 하락폭은 1% 대에 그쳤을 것으로 통계청 측은 추산하고 있다.

소비심리는 다소 회복세

이에 반해 세월호 여파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에 비해 1.4% 증가한 가운데 통신사 영업정지 해제에 따라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3.9%)를 중심으로 판매 호조세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생산 또한 도소매과 예술 · 스포츠 · 여가 등에서 늘어나면서 전달에 비해 0.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소매형태별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전달 대비 백화점(2.8%)과 전문소매점(5.3%), 슈퍼마켓(1.1%) 등은 늘어난 반면 무점포소매(-1.1%)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났다.

경기부양책 필요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산업활동' 자료를 살펴보면 5월 광공업생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등 실물경제가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차원의 경기 부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확대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한국은행에서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5월 경상수지는 27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27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3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71억2000만달러)에 비해 21억8000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2012년 3월 이후 27개월째 흑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소유권 변동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든 526억1천만달러를, 같은 기간 수입은 1.6% 줄어든 432억6천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 기간 서비스수지는 기타사업서비스, 운송 수지 등의 개선으로 전달 10억4천달러에서 3억4천달러까지 축소됐다.

백재호 편집위원

“요우커 잡아라”
대구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

대구시가 세계 여행업계의 ‘큰손’ 요우커(游客 ·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요우커는 국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물론 1인당 소비액까지 종전의 1위인 일본을 넘어선 만큼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대구를 방문한 중화권(중국 · 대만 · 홍콩) 단체 관광객수는 2만5천729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8천30명(45.4%) 증가했다.

중화권 별로는 중국 7천304명, 대만 7천906명, 홍콩 2천489명 순으로 비중이 높았던 가운데 이 기간 중국(4천960명 · 67.9%), 대만 (3천184명 · 40.3%) 관광객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여행업계 ‘큰손’ 요우커의 대구 방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과 전세기 관광객들이 몰리는 7~10월에만 1만2천200명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월 열리는 치맥페스티벌과 연계해 중국 관광객 200여명이 찾는데 이어 7~8월 두 달간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2천여명이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뿐 아니라 7~10월 넉 달간 중국 하얼빈과 닝보 등에서 대구국제공항 직항 전세기편으로 중국 관광객 1만여 명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중화권 관광객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국 현지에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최근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문화와 방한 관광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높아진 덕분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중화권 기업 인센티브 방한 단체와 중국 전세기의 본격 운항 등으로 한국 여행 붐이 조성된 것도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현재 일반 패키지 관광객이 아닌 틈새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화권 우수 여행상품 기획자와의 관광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 관리하는 등 요우커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여행기획업자 대상의 세일즈 마케팅 및 사전답사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중화권 관광객의 지역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성로 상점가에 중국 은련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관련 환영 현수막을 부착하는 한편 쇼핑 종사원을 대상으로 중국어 기본회화 책자 제공 등 쇼핑관광 여건 개선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수동 대구시 관광문화재과장은 “중화권 관광객이 대구를 방문할 경우 단순히 관광지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의 우수한 쇼핑관광 서비스에 만족하고 실제로 쇼핑이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대구가 쇼핑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출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승무원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은 392만명을 기록해 2위를 차지한 일본인 입국자 271만명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36.7%를 차지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100명 중 36.7명이 중국인이라는 뜻이다.

홍순대 편집위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군위 청정자연을 담은 건강한 우리 농산물

우리 몸을 이롭게, 가족의 건강을 이롭게 –
싱그러운 자연으로 가득 채운 건강한 먹거리, e로운!
군위의 맑은 물과 공기가 만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입니다.

e로운®

자연가득, 생명가득

아이군위를 검색하세요

군위군 GUN WI-GUN

경상북도
수산자원 방류 집중

경북도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어촌 마을어장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마을어장 146곳을 중심으로 전복, 해삼, 강도다리 등 고부가 우량 수산종묘 464만 마리를 집중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종묘 방류에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여름 적조로 인한 피해 보존과 점진적 감소 추세에 있는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동해안 등에서 발생한 적조는 1995년 이후 가장 심했으며, 이로 인해 양식어패류 뿐만 아니라 마을어장에서 큰 피해를 입혔다.

직접적 복구지원 근거가 없어 어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감안해 이번에 수산종묘방류사업 확대를 통해 어자원 복원 등 어촌마을어장 조성에 주력한다는 게 경북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사업 목표로 전복의 경우 동해안지역 104곳을 대상으로 153만 마리를, 해삼 역시 33곳에 248만마리를 방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도다리 등도 63만마리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종묘방류사업은 지난 94년 시작해 연간 100만여 마리 규모로 방류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수산종묘 2억6백만 마리를 방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넙치 2.56배, 전복 2.29배, 볼락 3.82배, 다슬기 4.5배 가량 씩 어자원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경북도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다.

경북도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최근들어 350여만 마리의 우량종묘를 생산, 어촌계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집중 방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통해 32개 어촌계가 전복, 해삼 등을 방류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와 함께 어자원의 자연 번식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두환 경북도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앞으로 연안생태계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바다숲 조성, 자연석 투석 등 연관사업을 병행 추진해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 또 "수산종묘방류사업의 성패는 어업인들에게도 달려 있다"면서 "채취시기까지 방류어장에 대해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을 제거하고 자율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자원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글 | 서용준 편집위원
사진제공 | 경북도

문경시
MUNGYEONG CITY

www.gbmg.go.kr

자연의 깊은 울림
마음의 깊은 감동
대한민국 힐링의 시작 문경

한국관광 100선

한국인이 꼭! 가 봐야 할 문경새재
관광지 3위 선정!

- 과거길, 여행길 등 우리나라 옛길 유산을 한눈에 보는 옛길박물관
- 자녀와 함께 배우고 즐기는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장 자연생태공원
- 다양한 드라마, 영화가 촬영되어 볼거리가 풍부한 문경새재오픈세트장
- 맨발로 황토를 밟으며 자연을 맘껏 호흡할 수 있는 맨발 황토길

관광안내센터 문경새재도립공원內 T.054-550-6414

눈이 먼저 감탄하는 문경팔경
문경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진남교반, 기암괴석과 맑은 계곡물이 아름다운 용추/쌍용/선유동/새재/운달계곡, 봉암사 백운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경천댐

지루할 틈이 없는 체험여행
국내 최초 철로자전거, 문경관광시걱장, 문경힐링랜드, 사계절썰매 등 레저코스, 예술혼을 찾아보는 도자기전시관, 활력을 주는 온천관광지여행

유유한 세월을 담은 전통문화
봉암사 극락전,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김용사 등종 등 다양한 국가문학재, 고모산성 등의 유적지, 석탄산업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문경석탄박물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지역축제
전국 으뜸 문경사과축제, 예술혼을 담은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세계 최고품질 문경오미자축제, 옛길을 걸으며 추억을 쌓는 문경새재옛길 달빛사랑여행

김천혁신도시 교통안전공단 신사옥 개청식 개최

경북도는 지난 6월 25일 경북김천혁신도시 교통안전공단 신사옥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이철우 국회의원, 권기선 경북지방경찰청장, 박보생 김천시장, 주민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공단 개청식을 가졌다. 사업비 431억원을 투입한 교통안전공단 신사옥은 2011년 12월에 착공, 지난해 12월 부지 1만5천150㎡(연면적 1만8천843㎡),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됐다. 태양광 발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1등급 건축물로 조성된 게 특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김천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4개 기관 중 첫 번째로 지난 4월 이전을 완료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1년 7월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 창립, 95년 5월 교통안전공단으로 개칭했으며, 현재 본사 규모 6본부 1연구원, 지방 1센터, 6지역본부, 8지사, 58검사소 규모로 운영 중에 있다.

철도 · 항공 · 도로 교통안전관리와 정보서비스 제공, 운행자동차 종합 검사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한 시험 · 연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에 나서고 있다. 경북김천혁신도시는 3천805천㎡ 면적에 계획 인구 2만6천827명 규모로 조성되고, 내년 말까지 총 12개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할 예정이다.

포항시, KTX 개통준비 T/F팀 활동 돌입

포항시는 내년초 KTX 개통에 대비해 완벽한 도시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KTX 개통준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기획예산과에 있던 KTX 개통준비 T/F팀을 건설도시국장이 총괄하고 6개 분야 12명의 부서장들을 팀원으로 하는 등 조직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T/F팀은 주 1회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근 12명의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가졌다.

정기태 포항시 건설도시국장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KTX 개통준비 T/F팀을 운영해 나가겠다"며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내년 초 역사적인 KTX 포항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건립

구미시는 강동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동면 인덕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를 건립하고 지난 6월 24일 남유진 구미시장과 농업인 단체 대표, 유관기관장, 지역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는 강동지역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위해 국도비 6억5천만 원, 시비 6억5천만 원 등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산동면 인덕리 일대 4천916㎡ 부지에 765㎡ 규모로 조성됐으며, 논두렁조성기 등 28종 7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구미농업기술센터는 2009년부터 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설치하고 65종 230대의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에 분소를 설치함으로써 농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강동지역 농업인들은 멀리 선산까지 가서 농기계를 빌려 사용했는데, 앞으로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부족한 농기계를 추가 확보하는 등 농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LICK

e-비즈니스

월간 경영저널 포털사이트와 동반성장할
쇼핑몰 입점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월간 경영저널이 올해 하반기 정보와 뉴스, 쇼핑몰을 결합한 **영남권 최대 포털사이트**를 오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경제계 뉴스, 각계층의 인터뷰, 부동산과 경매정보 등이 망라되고,
영남지역의 농특산물과 특화된 지역 기업체의 제품을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이 필요한 회사, 제품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회사,
좋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셀링파워가 약한 회사, 웰빙 트렌드에 맞는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모두 입점이 가능합니다.

쇼핑몰 입점 업체에는 전문가 경영 컨설팅과 온.오프라인 홍보 등
원스톱 서비스 혜택을 드립니다.

쇼핑몰 입점 문의 :
전 화. 053-766-1368
이메일. k_journal@daum.net

KEPI 경제·정책전문매거진 경영저널

eride GyeongBuk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신청사 건립

새 천년 新 경북의 혼을 담아 역사의 중심으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경북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첨단명품신도시**'

새롭게 열리는 웅도 경북, 새천년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경상북도
GYEONGSANGBUK-DO